

‘연간 60억’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여야 합의...민주·한국당 비판 여론에 결국 동참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줄여 양성화 ‘꼼수’

여야는 13일 교섭단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꼼수’ 폐지 아니하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이었던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된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영수증 처리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특활비를 반으로 줄여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남북의회 교류 등 의원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의 특활비는 폐지하기로 했으나 의장단과 상임위 차원의 특활비는 살려 놓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가 소수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됐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선 특활비 문제 외에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회의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다루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3일 오전 국회의장 정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

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은 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 ‘네 탓 공방’

與 “10년 보수정권 탓” vs 野 “문정부 잘못된 해법 탓”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13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지난 보수 정권의 탓으로 돌린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해법을 내놔서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문제 때처럼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야당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개정안이 사전 유출된 데 대해서도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져 혼란을 부추겼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지난)10년 보수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주미애 민주당 대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

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연금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조로 해 국회 논의에 임하는 등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 보기’를 우선시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매년 6%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던 운용수익률도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이 여실 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만기전담해 모든 곳에 간섭하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대책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서서 한편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당 대표는 야당을 경제살리기 동반자로 봐야”

광주 은 김진표 민주 당권후보 “사안별로 야당과 협치해야”



는다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보정당까지 합쳐도 안 된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안별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야당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사진) 당대표 후보는 13일 “경제 살리려면 여당 대표는 야당을 경제살리기 동반자로 보고 협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여당 대표의 자세변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문제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20년 집권론이다’ ‘보수개혁론이다’ 떠들면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야당과 협상을 하겠느냐”며 경쟁 상대인 이회찬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여당 대표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주 만나는 것을 공약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도 계속 발목 잡으면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묻는 말에도 “민주평화당과 합당해서 150석이 넘

김 의원은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경제심판 선거”라며 “경제전문가인 제가 우리당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저를 쏟아부을 자리에 당 대표밖에 없다”며 지지 호소했다.

또 광주형일자리·한전 에너지밸리·한전공대 설립·광주문화수도 사업 등을 지역 현안 과제로 꼽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5·18 묘지 참배하면서 진실을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광주 정신 살리는 민주당 만들어서 광주경제 살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 전대 후보들 ‘공명선거’ 다짐

‘화합적 통합’ 강조도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은 13일 국회에서 공명선거 선포식을 하고 ‘화합적 결합’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권은희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가 참석한 이 선포식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운천 후보는 “저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통합 때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를 수차례 만나게 하고 연애를 통해 결혼시킨 통합의 주역”이라며 “화합적 결합의 최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후보도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이 화합적 통합을 해서 국민에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당 장당 주역으로서 갖가지 정자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하규 후보는 “드루킹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바른미래당이 정치

체제를 바꾸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 당 대표 하면서 당의 통합을 이뤘듯 우리 당도 화합적 결합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합·경륜이 통합의 씨앗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난 선거에서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더는 경험·경륜은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젊음이 주역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에 단독 입후보한 김수민 후보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지상파 3사 방송 토론을 시작으로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송 토론 등 전당대회 예선 기간 총 8차례의 방송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당직개편...정무조정실장 이경윤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정무조정실장에 이경윤 전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정책실장에 김호진 전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사무처 당직 개편을 실시했다.

대변인 겸 홍보국장은 홍지영 전 대변인, 총무국장은 박경민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 총무부장, 조직국장은 정대진 전 조직국장, 교육연수국장은 양기호 전 기획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의회 의장인 이용재 임시의장 주재로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무처 상근 당직자 임명 심의의 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도민의 민생현장에 찾아가는 정당, 도민과 당원의 삶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책임자를 인선하는데 당직 개편의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시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2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층주택 118㎡ 1억9천만원 1층임대가능

투자·매도·교환

- 신안 증도면 방축리 땅 597㎡ 주택 91㎡ 팬션·별장용 2억6천
- 광산구 삼거리 대로변전 계획관리지역 3640㎡ 6억9천
- 전북 신대면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 4억6천
- 영암 삼호읍 준공업지 땅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충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땅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장성 삼계면 사창리 중심지 땅 192㎡ 건물 140㎡ 급매 2억
- 신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금남로5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적합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땅 792㎡ 팬션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가접 수기동 대지 168㎡ 2층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학장 이원수 박사

찾으십시오!
창립 50년의
누리십시오!
쾌적한 20,000평의 자연 경관 속에서...

새학기 기숙형 신설반 (선착순 30명 모집)

- 기숙형 신학연구원 (주초반): 주일 야간 - 화요일주간
- 대상 및 기간: 신학부, 2년(코스 수료 후 준목 고시 응시자격 부여, 이수학점에 따라 기간 조절 가능)
- 기숙형 평신도훈련반 (주말반): 금요일 야간 - 토요일 주간
- 대상 및 기간: 평신도, 3학기
- 교육 내용: 성경개론, 구약사, 예배학, 전도학, 선교학, 설교학, 찬송학, 청지기론, 교회론 등
- 특전: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지망할 경우 신학연구원 편입 가능.

기존 신설반 (12년간 유지)

▶월요일: 월요일 주간 ▶야간반: 주일야간 + 월요일야간 ▶토요일: 토요일 주간
※ 한 교차로 3명 이상 동시 등록시 30% 감면

모집기간: 9월 개강전 수시모집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고 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접수방법: 본고 행정실 및 홈페이지, 등록금과 장학 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람.

2학기 개강일

▶토요일: 9월 1일(토) ▶야간반: 9월 2일(주일) ▶신학부 M.T.: 8월 25일(토) 오전 11시
▶월요일: 9월 3일(월) ▶목회자반: 9월 4일(화) ▶개강예배: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광주바이블칼리지
http://gjb.c.kr

광주국제기독교스쿨
http://mygcds.com

☎ 061-381-0000 / 1365
010-9960-0091 (행정실장)
010-3636-9200 (교학처장)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도동길 42-34(성도리 산72)